Symphony No. 2 in B-flat major, Op. 52 "Lobgesang"

- □□

정보

개요
곡명: Lobgesang, Symphony No. 2 in B-flat major, Op. 52, MWV A18
작곡가: Felix Mendelssohn (1809–1847)
장르: 성서 말씀에 따른 교향 -칸타타 (Symphonie-Kantate)
작곡 ·개정 시기: 1838–1840년 구상과 작곡, 1840년 초연 뒤 개정 ·확장
위촉: Leipzig의 Gutenberg 인쇄술 4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의뢰되었다 .
초연: 1840년 6월 25일 Leipzig의 Thomaskirche에서 Mendelssohn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
출판: 1841년 Leipzig의 Breitkopf & Härtel에서 전곡 총보가 나왔다.
편성: 두 소프라노, 테너, 혼성합창, 오르간과 2관 편성 관현악

IMSLP: Symphony No. 2, Op. 52 (Mendelssohn, Felix)

Wikipedia: Lobgesang

Felix Mendelssohn의 Lobgesang, Op. 52는 세 개의 순수 관현악 부분으로 된 Sinfonia 뒤에 독창 ·합창 · 오르간이 들어오는 성악 작품이다. 후대에 통용된 Symphony No. 2라는 번호와 달리, Mendelssohn의 원제는 성서 말씀에 따른 교향 -칸타타 (Symphonie-Kantate)였다. 첫 세 부분이 관현악의 주제와 음향을 세우고, 이어지는 아홉 성악 번호가 시편과 서신, 코랄의 언어로 그 재료를 확장한다.

원제와 후대의 교향곡 번호

작품의 긴 원제는 Lobgesang, eine Symphonie-Cantate nach Worten der heiligen Schrift이다. ‘찬양의 노래 ’라는 제목은 성서 텍스트를 사용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관현악과 성악이 하나의 찬양 구조를 이루는
방식을 드러낸다. 초기 자료와 원제에서 작품은 순수 기악 교향곡이 아니라 교향 -칸타타로 제시되며, 후대의 출판 ·목록 관행에서 Symphony No. 2라는 번호가 굳어졌다. 번호는 통용 식별자로 남아 있지만, 작품의
장르와 공식 구성은 원제에 명시된 Symphonie-Kantate에 해당한다.

이 장르적 범위를 고려하면 Beethoven의 Symphony No. 9와의 비교만으로 작품의 형식을 설명할 수 없다. 19세기 비평가 A. B. Marx와 Richard Wagner가 Beethoven을 모방했다고 비판한 기록이 있지만, 그 평가는 수용사의 한 층위다. Benedict Taylor의 학술 음반 비평은 Lobgesang이 Mendelssohn의 다섯 번호 교향곡 안에서 성악 중심의 예외적인 작품이며, 번호 자체가 출판 순서와 연결된 후대 분류라고 설명한다.

먼저 놓인 세 개의 Sinfonia
현행 Urtext와 출판사 목차는 성악부에 앞서 세 개의 관현악 부분을 둔다.

1. *Maestoso con moto – Allegro* B-flat . .
2. *Allegretto un poco agitato* G , 6/8 . , .
3. *Adagio religioso* D , 2/4 . , .

Sinfonia . Naxos Jun Märkl , , .

Breitkopf Carus 2 10 , .

2	*Alles, was Odem hat, lobe den Herrn* *Lobe den Herrn, meine Seele*	.
3	*Saget es, die ihr erlöst seid*	.
4	*Sagt es, die ihr erlöset seid*	3 .
5	*Ich harrete des Herrn* *Wohl dem, der seine Hoffnung setzt auf den Herrn*	.
6	*Stricke des Todes hatten uns umfangen*	.
7	*Die Nacht ist vergangen*	.
8	*Nun danket alle Gott*	Martin Rinckart , .
9	· *Drum sing ich mit meinem Liede*	.
10	*Ihr Völker! Bringet her dem Herrn*	.

. 2 5 , 6 , 10 13 , 11 . · .

성서와 코랄의 언어

성악부의 독일어는 Mendelssohn이 사용한 Luther 성서 번역을 바탕으로 한다. Durham의 연구 표는 시편 150, 33, 145, 103, 107, 56, 40, 116편과 로마서 13장, 에베소서 5장, 이사야 21장, 역대기상 16장을 번호별 출처로 대조한다. 8번 Nun danket alle Gott에는 Martin Rinckart가 쓴 찬송가 두 연이 들어간다. 작품은 한 편의 연속된 성서 서사보다, 서로 다른 본문을 찬양과 증언의 순서로 배열한 구성에 가깝다.

2번의 Alles, was Odem hat, lobe den Herrn은 성악부 전체를 여는 표제 구절로 제시된다. Carus가 전사한 Klingemann 서신에서 Mendelssohn은 먼저 악기가 자기 방식으로 찬양하고 이어 합창과 독창이 온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이 기록은 작곡가의 원본 편지를 직접 옮긴 자료가 아니라 출판사와 연구자가 전사한 기록이며, 작품의 성악 ·관현악 관계를 보여 주는 작곡가 발언의 2차 전사다.

Gutenberg 인쇄술 400주년이라는 의뢰 배경과 Luther 성서의 사용을 ‘말씀의 보급 ’ 또는 ‘어둠에서 빛으로의 이동 ’으로 연결하는 설명은 Durham, Dallas Symphony Orchestra, Bayerischer Rundfunk의 프로그램
해설에서 제시한 해석이다. 이 해석은 7번 Die Nacht ist vergangen과 마지막 합창의 기능을 설명하지만 , Mendelssohn이 모든 번호에 세부적인 표제 프로그램을 부여했다는 뜻은 아니다.

작곡, 개정, 그리고 1841년 총보

Lobgesang은 세 구상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 Bärenreiter의 Urtext 안내는 1838년 Festgesang Möge das Siegeszeichen, 1838–39년 미완성 B-flat 교향곡, Leipzig의 Gutenberg 기념을 위한 ‘더 큰 시편 ’ 구상이 작품으로 수렴했다고 설명한다. 첫 버전은 1840년 6월 Leipzig의 Thomaskirche에서 Mendelssohn 의 지휘로 처음 연주되었다 .

대부분의 출판사 ·악단 ·Mendelssohn Haus 자료는 초연일을 6월 25일로 적지만, 2012년 Vatican의 Gewandhaus 공연 연설은 같은 사건을 6월 24일로 표기한다. 초연일에는 하루 차이의 기록이 남아 있다.

Mendelssohn은 첫 연주 뒤 작품을 개정했다. Bärenreiter 안내는 1840년 6월 초연과 12월 16일 사이에
중요한 확장이 이루어졌고 , 개정된 작품이 작센의 왕 Friedrich August II가 참석한 특별 연주에서
연주되었다고 기록한다. 1841년 9월에 나온 Breitkopf & Härtel 총보는 이 왕에게 헌정되었다 . Bayerische Staatsbibliothek가 보존한 1841년 Leipzig 판본은 223쪽의 총보로 서지 정보가 남아 있다.

첫 영어 공연은 1840년 9월 Birmingham Festival에서 열렸다고 기록된다. Mendelssohn이 승인한 영어 번역과 독일어판이 1840년대 초부터 병존한 점은 작품의 초기 공연 전통을 이룬다.

편성

John Michael Cooper가 편집한 Bärenreiter Urtext는 2020년에 출판되었으며 , Breitkopf & Härtel과 Carus도 총보 ·성악보 ·합창보 ·오르간 파트를 제공한다. Bärenreiter 안내는 Mendelssohn이 승인한 자필보, 피아노 ·성악 편곡, 초판 파트보와 초판 총보 사이의 불일치까지 검토 대상으로 삼는다. 1840년 첫 버전과 1841년 출판판은 승인 자료와 개정 범위가 서로 다른 판본이다.

현행 총보의 기본 편성은 소프라노 두 명과 테너 한 명, 혼성합창,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4, 트럼펫 2, 트롬본 3, 팀파니, 오르간, 현악 5부다. Schott 카탈로그는 세 트롬본을 알토 ·테너 ·베이스로 나누며, 합창 표기는 자료에 따라 SATB(SATB) 또는 SSAATB로 달라진다. 이 표기는 합창 성부의 분할 방식을 나타내며 별도의 두 합창단을 뜻하지 않는다. 현행 편성표에는 하프가 포함되지 않는다.

8번 코랄에서 무반주 성악이 먼저 나오고 팀파니 ·목관 ·오르간 ·현이 결합한다는 Bayerischer Rundfunk의 해설은 오르간이 단순한 보강 악기가 아니라 성악부와 관현악부를 잇는 음향 요소임을 보여 준다. 출판사
카탈로그는 오르간을 독립 파트로 제시하며, 작품의 오르간 성부가 출판 체계에서도 별도로 다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녹음과 연주 전통

Jun Märkl이 지휘한 MDR Symphony Orchestra·MDR Radio Choir의 Naxos 녹음 (2008년 8월 26–29일 Leipzig 녹음, 2010년 발매)은 전곡을 68분 41초로 담았다. Naxos는 세 Sinfonia 부분을 12분 24초, 6분 36 초, 8분으로 나누고 성악부를 별도 트랙으로 제시한다. MusicWeb의 Rob Barnett는 이 연주를 열정적이고
불꽃이 튀는 해석으로 평가했으며 , 합창과 독창의 매끄러운 결합과 Nun danket alle Gott의 빛나는 음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John Eliot Gardiner와 London Symphony Orchestra, Monteverdi Choir가 2016년 Barbican Hall에서 녹음한 LSO Live 판은 64분이다. The Classical Source의 Antony Hodgson은 빅토리아 시대에 작품이
아마추어 합창단에서도 널리 연주되었으나 이후 관심이 줄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Beethoven의 4악장
교향곡과 달리 Lobgesang은 세 관현악 악장 뒤에 오라토리오가 오는 Symphonie-Kantate라는 점을 강조하고, Gardiner가 독일어 성악과 세 기악 부분을 투명한 음향으로 연결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Andrew Manze의 NDR Radiophilharmonie·NDR Chor 녹음은 2017년 Hannover 실황을 바탕으로 2018년 Pentatone에서 나왔으며, 음반 페이지는 약 1시간 3분으로 제시한다. OpusKlassiek은 이 판을 세 Sinfonia와 성악부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통일된 연주로 보면서도, 최종적인 설득력 평가는 유보한다. Benedict Taylor 의 Cambridge 음반 비평은 Manze의 해석을 ‘소박하고 섬세한 ’ 음악 만들기로 평가하고, 현대 녹음들이
독일어판과 영어판, 빠른 템포와 전통적인 음향 사이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한다고 비교한다.

소요 시간

출판사별 작품 페이지는 Breitkopf 65분, Carus 66분, Schott 카탈로그 약 60분으로 제시한다. 실제 음반은 Märkl 68분 41초, Manze 약 63–64분, Gardiner 약 64분으로 서로 다르다. 이 차이는 개정판, 반복, 템포, 하위 성악 번호의 트랙 분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 작품의 대표적인 연주 시간은 약 60–69분이며, 세 관현악 부분과 성악 번호의 분 단위 시간은 음반별 트랙 정보에 해당하며, 모든 판본에 적용되는 고정값은 아니다.

출판 정보

1841년 Leipzig의 Breitkopf & Härtel 판본은 Lobgesang의 초기 전곡 총보 계열을 대표한다. 현재
연주용으로는 John Michael Cooper 편집의 2020년 Bärenreiter Urtext, Breitkopf & Härtel의

Urtext·critical report, Carus의 총보 ·성악보 ·합창보 ·오르간 파트가 각각 유통된다. 1840년 첫 버전과 그해 개정 ·확장, 1841년 총보 사이에는 승인 자료의 차이가 있어 판본에 따라 번호 ·성악부 ·오르간 파트의 제시 방식이 달라진다.

주요 자료

Breitkopf & Härtel: Lobgesang Op. 52, MWV A18: 현행 목차, 편성, 65분, 총보 ·파트 정보. Bärenreiter t[akte]: Lobgesang Urtext: 1838–1841년 성립 ·개정 ·출판, 성서 ·Rinckart 텍스트,
John Michael Cooper 편집판.
Carus: Lobgesang: 독창 ·합창 ·관현악 ·오르간 편성, 66분, Klingemann 서신 전사와 목차. Deutsche Digitale Bibliothek·Bayerische Staatsbibliothek: 1841년 Breitkopf & Härtel 총보의 서지와 소장 정보.
Durham e-thesis, Mendelssohn and the Musical Sublime: 성서 텍스트 출처, 세 Sinfonia의 형식, 개정 ·초연 ·수용 맥락.
Mendelssohn Haus Leipzig: 1840년 Thomaskirche 초연과 Gutenberg 기념 연보.
Dallas Symphony Orchestra 프로그램 노트: Gutenberg 기념행사와 작품의 교향 -칸타타 맥락. Bayerischer Rundfunk Choir 프로그램: 아홉 성악 번호, 코랄, 오르간 ·합창의 진행.
Naxos 8.572294: Jun Märkl 녹음, 13개 트랙과 트랙별 시간.
Rob Barnett, MusicWeb International 평론: Naxos 녹음의 템포 ·음향 ·성악 평가.
Antony Hodgson, The Classical Source 평론: Gardiner 녹음, 독일어판, 빅토리아 시대 수용과 장르 설명.
Benedict Taylor, Cambridge Core 음반 비평: 번호의 후대성, 녹음 주기와 현대 연주 비교.